

<논 평>

암석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한 제언

박계현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환경지질학과

요약: 최근에 연구비의 지원과 연구자의 평가, 기관평가등에 활용되는 국내의 연구업적 평가제도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지질과학 대부분 분야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학자들 못지 않게 노력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질과학분야의 기본적인 자료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발표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보다 활성화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연구결과들도 정당한 논문으로써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지질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야외조사 자료, 야외나 실내에서의 기재적 연구결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등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됨으로써 이러한 기본자료를 생산하려는 중복된 노력을 절약할 수도 있으며, 연구자들의 전체적인 역할 분담이 가속화되고 더욱 빠른 기간 내에 보다 진전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 언

최근 몇 년 동안에 국내의 연구업적 평가제도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등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연구비 신청자들의 연구업적 평가에 적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각 연구소와 대학등에서 소속원들의 승진과 업적 평가, 또한 기관평가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된 변화내용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를 차별적으로 우대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SCI에 수록된 잡지들이 과학과 공학의 거의 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라는 전체 하에 도입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저자의 경중을 따져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경우 저자의 순서에 상관없이 몇 명의 저자에 의한 논문인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첫 번째 저자나, 혹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나, 아니면 다른 공동저자나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제도가 일부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SCI에 등재된 학술지 안에서도 평균적인 논문의 피인용 빈도를 나타내는 잡지의 인용지수(impact factor)가 함께 고려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가 발표한 개별 논문의 인용빈도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

한 평가 방식의 변화 중에서 두드러진 양상의 하나는 점차적으로 논문의 양과 질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한국과학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제안서 제출자격과 연구수행 결과물의 평가에 새로운 평가기준이 엄중히 적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질과학 대부분 분야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는 연구문을 발표하기까지 평균적으로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야외조사 및 시료채취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채취된 시료로 연구를 하기 위해 시료로부터 기본적인 기재를 실시하고 분석을 위한 시료의 준비 및 가공, 분석, 분석자료의 해석등에 평균적으로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연구에 소요되는 총기간이 길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논문의 양적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매우 넓은 세부분야에 걸쳐 여러 종류의 잡지들이 발간되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연구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SCI 잡지라 하더라도 소위 인용지수가 다른 분야의 잡지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 또한 잠재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발간되는 지질과학 잡지들 중에는 SCI에 등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국내 잡지

에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들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질과학의 경우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지상에 분포하는 특정지역의 지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특정지역의 지질은 비록 그 자체가 그 지역의 지질현상을 규명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될 기회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점 역시 SCI 등재학술지에 게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비록 지질과학의 여러 분야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업적의 평가기준에 대한 현재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모든 학문 분야에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추세를 거스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질과학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갑자기 이전보다 몇 배되는 연구성과를 내놓을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학자들 못지 않게 노력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아래에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변화의 수용과 적응

연구논문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현재 국내 대부분의 지질과학분야 학자들은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 할 때 그 과제와 관련한 연구논문을 매년 한 편씩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지질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른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 비해 훨씬 적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편으론 힘들여 내놓은 논문에 대해서도 노력을 들인 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타 분야의 학자들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 끝에 발표한 논문이 그나마 훨씬 못한 점수로 평가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질과학분야의 학자들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러한 타개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연구논문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이다.

학술지는 근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발표된 논문을 해당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적인 성과가 있으며 이러한 결

과를 다른 학자들이 볼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발표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현재 국내의 지질과학 분야에서는 과연 이러한 잣대로 볼 때 가치있는 논문들이 모두 발표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이를 발굴하여 활발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장된 자료의 발굴과 보고

이미 연구가 되어 상당한 성과를 올렸었던 결과가 여러 학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 같은 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다른 학자들은 중복되게 같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지질과학의 경우 지역적인 조사와 자료획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기존의 조사결과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욱 발전된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학문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이나 기업체, 연구소등 기관에서 조사 및 연구되었으나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고 사장된 자료도 많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다음에 일제시대와 해방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일제시대의 자료: 자료의 사장 및 연구결과를 여러 연구자들이 공유하지 못하게 된 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의 하나가 일제시대와 해방이후의 단절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의 지질과학은 일제시대에도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의 자료들 중 상당수는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주로 1세대라 불릴 수 있는 지질학자들에 의해 자료의 일부분이 소장되고 참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주로 일본에서 수학하고 일어의 해독이 가능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과거에 어떤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한이나 민통선 안쪽 지역의 경우 현재는 야외조사와 시료채취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한 과거의 연구자료는 매우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댐 건설로 인해 현재는 수몰된 지역이나 도시개발, 산업체 입주 등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자료는 매우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발굴하여 학술지에 소개하고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조사 및 연구기관의 자료: 지질과학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국공립 연구소와 공사들에 종사해 왔으며 그동안 각종 축적의 지질도폭 발간과 자원개발을 비롯한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많은 연구와 조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논문으로 발표될 수 있는 훌륭한 결과를 거두었으나 보고서로만 작성되고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지는 않은 경우가 매우 흔한 것으로 알고있다. 보고서 중에서는 여러 곳에 배포되고 이를 참고해 인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배포에 그치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성과들이 다른 연구자들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외에도 어떤 경우에는 사업수행 당시에 대외비로 분류된 내부자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논문요건에 부합하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연구원들이 계속적인 사업참여에 쫓겨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해 논문으로 게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존의 논문 틀이 과연 절대적으로 적합한 기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논문으로 게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추가적인 작업이나 새로운 자료와 보다 깊은 해석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귀중한 결과들이 모두 사장된다면 지질과학 전체에 큰 손실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러한 자료들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다른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연구 및 조사기관의 소속원들은 보다 원활하게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기본적인 자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외부의 연구자들은 귀중한 기초자료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런 자료들은 많이 인용되는 논문으로써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개인 및 업체 소장자료: 예를 들어 과거에 개발되었으나 지금은 폐광된 광산들의 상세한 갱내도와 주변지질조사 결과 등도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접근할 수 없는 폐광과 유사한 종류의 자료로는 도로와 도수로 등을 위한 각종 터널 공사시 획득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공사시에 작성된 터널 내부의 지질에 대한 조사결과도 해당지역 연구자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장된 자료의 발굴과 보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구자가 본인의 자료나 연구결과를 직접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다른 논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으므로 논의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아 현재 널리 활용이 곤란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소개와 논의를 하는 것도 활성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되어야하며 노력의 대가로 인정 받아야 할 연구결과 및 자료

앞에서는 많은 자료들이 사장되고 있으며 이를 발굴하여 많은 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논문을 통해 보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는 논문의 틀에는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이후에 지질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정량적 자료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현대적 연구장비를 활용한 자료의 획득과 보고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현재도 더욱 첨단 장비의 사용하는 새로운 연구분야들이 계속 개척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의 하나가 기본적인 자료의 경시라고 할 수 있다. 야외에서의 지질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관계의 파악이 상당히 소홀해진 반면에 실내에서의 작업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자료의 생산과 이용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화성암석학의 경우 주원소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는 미량원소의 분석은 필수인 것처럼 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는 하커 도형, 희토류원소 변화패턴, 거미도형, 화학적 지표에 의한 암석분류도형, 지구조 판별도와 같은 각종 도형들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동위원소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기기들을 이용한 자료들이 없으면 논문을 쓰기 힘들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나고있다. 하지만 야외에서의 확실한 지질관계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첨단기기로 만들어낸 자료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지질조사 및 세밀하게 관찰된 기재적 자료가 부족하여 첨단기기로 만들어낸 자료의 해석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반면에 야외에서의 조사만으로도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를 밝혀내는 등 훌륭한 연구업적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지질과학 자체와 인접 학문 분야의 발달에 따라 연구분야들이 점차 세분화되고 보다 전문화되면서 모든 지질과학자들이 야외조사와 실내작업의 상당 영역을 골고루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실내연구만 선호하고 야외에서의 기초적인 조사 및 연구를 소홀히 한다면 학문적 발

전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야외조사 및 세밀한 기재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연구수행에 대한 성과인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과물들은 보다 용이하게 논문으로 발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존의 지질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자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종 축적의 지질도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한 결과로 작성되었으며 지질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세한 부분에서는 수정되어야 할 곳도 많이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질도가 출판된 이후에 지질도의 일부 사항들에 대해 수정된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이 별로 없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는 정확한 지질의 분포와 상호관계를 아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문이 발표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실정이다. 비록 연구논문에서 논의에 수정된 지질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왜 그러한 수정이 이루어졌고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야말로 두고두고 많은 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운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나중의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똑같은 조사를 위해 다른 학자들이 흘려야 하는 땀과 시간을 보다 진전된 다른 연구를 위해 바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체적인 학문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축적에서의 지질도 작성과 수정에 관한 사항들은 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지질도 자료의 논문 게재가 활성화된다면 야외에서의 지질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상당수의 연구자들도 노력의 결과를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또한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조사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지질과학의 연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질조사자료의 논문 게재는 앞으로의 조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많은 과거 지질분포자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질의 분포에 대한 조사는 평면적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절개지에 대해서도 조사될 수 있다. 특히 각종 터널 공사시에 작성된 지질분포도와 구조선들은 지표면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한 노두의 연속적인 분포와 더불어 많은 구조양상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댐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나 도로공사에 새롭게 드러난 바닥의 지질분포나 측면 절개지의 지질자료 역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수몰된다거나 절개지의 사면을 안정화시키거나 조경을 위한 공사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어 공사완료 후에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상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채석장과 같이 계속적으로 암석을 절취해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를 보이고 있던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두들에 대한 조사자료 역시 선별적으로 보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외에서의 기재적인 연구: 앞에서 언급한 것과는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새로운 지질도의 작성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관찰에 대한 내용을 따로 논의한다. 야외에서의 지질조사 자료들 중에서도 지질의 분포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여러 암석 및 지층 단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알려주는 야외에서의 증거들이다. 많은 지질학적 논란이 이러한 관계들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에서 근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면 비록 이것이 어떤 한 노두에서 관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치와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나 도면, 그리고 간단한 기재만으로도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질의 기재 역시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지층명으로 논의가 되면서도 정말 같은 층을 언급하는 것인지 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막연히 어느 층이 어느 층과 어떤 관계라고 언급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어떤 노두에서 본 관계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계의 언급시에 보다 확실한 야외지질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암체나 층서 단위 안에서 관찰되는 특정 양상의 분포와 변화에 대한 기재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요즘의 상당수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재적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불과 몇 문장으로 그치고 말지만 야외에서의 관찰결과 만으로도 좋은 논문이 작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내에서의 기재적 연구: 최근에는 고가 기기를 이용한 자료의 생산과 보고가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인식되어버린 연구분야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기재적 연구가 소홀히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첨단 기기를 이용한 자료의 보고는 선진연구를 하는 것이고, 암석의 슬랩이나 박편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것은 진부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논문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조차 생겨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질이 의심스러운 분석자료를 별다른 해석도 없이 구색 맞추기 위해 보고하는 것보다는 충실한 기재적 연구가 더 보람있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암석에 대한 화학적 분석 결과가 그 암석으로써는 당연히 기대되는 주원소 및 미량원소 분석값들을 보이고, 또한 희토류원소의 패턴등 여러 지구화학 도형들 역시 당연한 변화양상만을 보이고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그리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이 보다는 박편 관찰 결과 암체 내에서 광물의 종류와 모드가 어떻게 변화하며 공생 및 치환관계는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것이 이 암체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것을 보다 상세하게 지시해 주는 등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새로운 해석 및 창의적 아이디어: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해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들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야외조사를 하고, 관찰을 하고, 분석자료를 만들어 내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노력을 들인 결과이고 실제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이지만 남의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해석하거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결과를 내놓으려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도 들에 박힌 듯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한번의 창의적인 해석이 전체 학문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음은 역사를 통해 여러 번 증명이 된 사실이다. 이러한 창의적인 발상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이해되지 못하고 배척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들이 자유롭게 제시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어떤 면에서는 미흡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

에서 일관성이 있고 타당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발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지질과학분야에서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설명하는 해석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지질과학분야의 기본적인 자료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결국 보다 활성화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이전에는 논문으로 발표하기엔 너무 단편적인 연구결과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발표됨으로써 이러한 기본자료를 생산하려는 중복된 노력을 절약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연구자들의 역할 분담이 가속화되고 보다 진전된 연구성과가 더욱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질과학 연구의 여러 분야에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연구결과들도 정당한 논문으로써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지질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야외조사 자료, 야외나 실내에서의 기재적 연구결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등이다. 이 제언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논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계기로 앞으로는 앞에 열거한 것들과 같은 연구결과들이 조금이라도 더욱 활발하게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2월 15일 접수, 2002년 3월 2일 채택)